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들려주는 이야기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세계를 흥 넘치게 하라

최준식 지음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냄비 이론이다. 냄비에 내용물을 넣고 불을 세계 가하면 내용물이 끓어오르면서 밖으로 넘치게 된다.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 한류가 외국으로 전파되는 모습과 닮았다. 한국인들이 우선 자신들의 노래와 춤, 그리고 드라마를 격하게 좋아하거나 그 에너지가 넘쳐났다. 그렇게 넘쳐나는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이웃 나라로 전파되었는데 그 에너지의 ‘콘텐츠’를 잘 관리하자 전 세계로 그 기운이 파고들었다. 그 결과 이제는 세계 대중가요와 드라마 시장에서 한류가 지류가 아니라 본류가 된 것이다.”(본문 중에서)

한류가 세계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으로 확산된 한류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서구 모방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토대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탄소년단 슈가는 지난해 전통음악인 ‘대취타’라는 곡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많은 외국인 팬들은 대취타라는 음악을 알기 위해 우

리의 정악을 조사했을 것이다. 그뿐인가. 걸 그룹 블랙핑크는 지난해 ‘How You Like That’이라는 히트곡을 부르며 한복을 선보였다. 세계인들은 한복에 대해 신비로운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는 “한국문화를 아는 것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진정한 세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한다.

최 교수의 책 ‘세계를 흥 넘치게 하라’는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일대일 이렇다. 한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왜 ‘우리’가 이 우수무쌍인지 모른다. 한글은 왜 과학적인지, 한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조선의 기록 문화는 왜 위대한지 등이 그렇다.

무엇보다 저자는 우리의 선사시대를 주목한다. 1979년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굴된 ‘아슐리안형 돌도끼’는 양면을 가공한 규면 당시 한국에서의 출토로 인류 구석기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했다. 청동기 시대 유물 고인돌도 마찬가지다. 무덤 역할을 하는 고인돌이 세계 주목을 받는 것은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 문화 원형이 만들어진 시대를 백제로 본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든 연유다.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중국과의 교류를 매개로 국제 문화도 수용했으며 한편으로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나라현 호루지에 있는 관음불상과 교토시 교류지의 미륵반가상은 모두 백제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최고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을 비롯해 동아시아 최고 불교대장경인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우리 문화자존심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간행한 것도 고려시대이며, 고려 불화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오늘날 한국이 차지하는 문화적 위상은 어떤가. 드라마 ‘대장금’은 아시아를 넘어 아랍은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인기몰이를 했다. 싸이는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으며 방탄소년단은 1위에 오르는 등 질주 중이다. 빈부격차, 자본주의 폐해를 다룬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최고 권위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문을 석권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인들은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조성진, 김연아,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와 스포츠 스타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우수성을 여실히 증명한다. 저자는 한국인의 문화적 자존감을 ‘신기(神奇)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정해진 것보다는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주도면밀하게 하기보다는 일을 시작하면서 계획도 같이 세워나가는 현상적 혹은 임기응변성이 강한” 특성이 오늘

의 한류를 만들었다고 본다.
〈스타1·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불만의 집

사사 나스피니 지음·최정윤 옮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어딘가에 위치한 상상 속 마을이 있다. 이름은 ‘레 카세’. 고요하지만 뭔가 모를 불안이 흐른다. 2차 대전 시기에는 독일군과 파르티잔들의 대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가난한 관광촌으로 전락했다. 사람들은 광박한 심성을 갖고 있는데다 외지사람을 배척한다.



이탈리아 현대문학의 기대주로 떠오른 작가 사사 나스피니의 장편 ‘불만의 집’은 상상 속 마을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외딴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애정과 중요

를 키워 온 인간들로 인해 마을은 늘 혼란스럽다. 작가는 특유의 미스터리, 고딕 소설 등의 형식을 매개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서스펜스적인 요소를 곳곳에 가미한다. 사람들이 차례로 죽음을 당하는데 급커브 길에서 끊임없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탄광에서는 매몰사고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 남은 건물이 붕괴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마을을 떠나고 싶어한다.

어느 날, 오래 전 마을을 도망치듯 떠나는 젊은 남자가 돌아오면서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온통 부정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감정이 떠오른다.

‘아베니레’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소설, 2000년대 이탈리아 소설 역사상 최고의 업적 중 하나’라고 평할 만큼, 소설은 출간 2개월만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결정됐다.

작가는 속고 속이고, 훔치고, 복수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온갖 만행이 되풀이 되는 인간의 양상을 보여준다. 역사와 사회가 지닌 한계와 모순이 그렇게 작가의 눈에 포착된다. 비단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은 그때 문이다. 〈민음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

손성욱 지음

‘연행록’ 100여 종을 10년에 걸쳐 읽고 이를 토대로 고르고 추린 19세기 조선의 안과 밖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 손성욱 교수가 펴낸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는 수많은 연행록 알맹이를 추린 책이다. 저자는 근대 한중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조정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저자에 따르면 19세기 들어 ‘불 관(觀)’이나 ‘놀 유(遊)’ 자가 들어간 연행록이 많이 출간됐지만 통찰력있는 소수를 위한 유럽 이야기기는 아니라고 본다. 저자는 ‘은둔의 나라’ 조선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청나라 연경에서 조선 사신들이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보았는지 일화를 소개한다.

책은 무엇보다 ‘재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힘든 코끼리 관련 일화가 대표적이다. 훈련된 코끼리가 앞다리를 구부리면 마치 절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청나라는 황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조화에 코끼리를 등장시켰다. 베트남 등에서 조공 받은 코끼리는 일 년에 수백 석의 콩을 먹는 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19세기 후반에는 서양이 중국의 주변을 식민지화 하면서 코끼리의 북경행은 끊기고 말았다.

1860년대 초 러시아 공관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진을 찍은 이항익은 카메라 렌즈에 거꾸로 비친 일행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이 무슨 술수인가’라고 되묻는 장면은 재미와 흥미를 준다.

저자는 “가장 큰 바람은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재미있게 읽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흥미가 생긴다면 잘 알려진 연행록 이외에 다른 연행록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고 권한다. 〈푸른역사·1만59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카스 무데 지음·권은하 옮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다’ ‘극우’ 하면 쉽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극단적 인종 차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파시즘이나 외국인 혐오, 민족주의, 이민 배척주의, 이슬람 혐오 등 차별과 혐오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념들이다.



최근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정치학 및 행동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가 출간됐다.

25년간 극우에 대해 연구해온 네덜란드 정치학자 카스 무데 미국 조지아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극우의 역사, 지금의 정치적 이슈 등 10가지 키워드로 극우가 어떻게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정리했다.

극우의 주요 활동으로는 선거와 시위, 폭력 등이 있다. 특히 폭력은 과거에는 극우 운동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영역이었지만, 최근에는 계획적이고 치명적인 테러의 형태가 되고 있다. 극우 무장단체는 테러 등 정치적 폭력을 저지르기 쉽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아울러 극우 정당은 중앙집권화돼 있고 지도자 중심적인 조직 구조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는 미디어가 2000년 이후 극우를 이끄는 핵심 조직이 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우익 언론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범죄와 부패, 이민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지지자를 선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우리는 왜 자유민주주의가 현재 최고의 정치체제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안의 수많은 이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정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한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로 피어나는 광주 동명동

- 광주의 역사와 희망으로 채운 동명동의 시간
- 문화재생 프로젝트 한창, 개성있는 문화마을로
- 인문·문화 향기 나누며 동명동을 지키는 사람들
- '동명동 100배 즐기기' 동리단길 투어

클릭, 문화현장

'자연을 그려내는 미술관' 3월 개관 전남도립미술관

클릭, 문화현장

문화로 품은 건축물

자연광과 예술이 만나는 순수한 공간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문화 화재-광주 북구 '우리동네 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에 갤러리가 생겼어요"

베국남의 대중문화 자파일

설 자리 사라진 개그맨과 코미디 부활 절실

예향 초대석

45년 종이인형 만들어온 엄정애

“인형 만드는 과정은 치유의 시간”

우리 땅 우리 문화

아름다운 누각, 남원 광한루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

건축사의 꿈을 담은 집 광주 백운동 '백소현(白巢軒)'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예술과 기술 통합, 모던한 '바우하우스 양식' 만든다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지기

조너선 스위프트 '컬러버 여행기'

호기심이 마르면, '우리'에 갇힌다

예향의 야구학

강속구의 시대, 한국 야구는 왜 소외됐나

전시 리뷰

해동문화예술촌 <문화로 빛나는 도시, 담빛예술마을>전

예향의 만난 이 사람

JTBC '싱어게인' 주역 정홍일·이무진 스마트스타디 부사장 이승규 모교 찾아 훈련하는 자이언츠 투수 김원중

씩씩하게 남도 한 바퀴-구례

꽃소식이 달려온다, 구례 새봄 여행

섬진강, 지리산에 맴도는 불

우리말박물관 산수유